

## 2019 대동제, 5월의 대미 장식해



▲상상마당에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학생들은 교내에 들어선 푸드트럭과 주점에서 음식을 사들고 와 담소를 나누며 남은 축제를 보냈다.

2019학년도 대동제가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 1일차에는 ▲최현우 미술사 특강 ▲동아리 공연(MGOP) ▲한성 영화제가 열렸다. 이날 동아리 공연에서는 오케스트라 동아리인 MGOP가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OST인 〈인생의 회전목마〉를 비롯해 총 5곡을 연주했다. 한성 영화제에서는 영화 동아리 영화다숨이 직접 창작한 영화인 '백일몽'을 선보였다.

2일차에도 버스킹 공연과 낙산가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후에는 인디 그룹 '신길동 로망스'와 '포레스코'가 상상마당에서 버스킹 공연을 했다. 이후에는 한성대학교 방송국(이하 HBS)이 개최하는 낙산가요제가 치러졌다. 올해 낙산가요제는 음원으로 발매된 자작곡만 출전 가능했던 작년과 달리,

음원으로 발매된 적이 없는 미공개곡도 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사를 총괄한 민경아(인문 2) HBS 실무국장은 "작년 낙산가요제가 진행이 늦어지고 홍보가 부족해, 올해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며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우들 덕분에 행사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미래관과 탐구관 앞에서는 체험부스와 학과 주점도 마련됐다. 그중 패션학부는 'EDM 파티'를, 연극 동아리 낙산극회는 '귀신의 집' 등을 기획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날 초청가수로는 비와이와 마마무가 끝을 장식했다.

3일차 일정은 ▲동아리 공연 ▲북면가왕 결승전 ▲가수 공연(폴킴, 위너)으로 구성됐다. 이날 동아리 공연에는 밴드 동아리 왕산악과 들불의 콜라보 공연도 마련됐다. 동아리

연합회가 주관한 북면가왕은 지난 5월 22일에 진행된 예선을 거쳐 선발된 2명의 참가자가 우승을 두고 무대를 꾸렸다.

이번 대동제를 기획한 정호재(무역 4) 총학생회장은 "미흡한 점이 있음에도 열심히 축제를 즐겨준 학우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행사뿐만 아니라 공약과 소통에 더욱더 힘쓰는 총학생회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29·30일에는 총학생회의 주관 아래 플라마켓 부스도 운영됐다. 우리학교 비공식 마스코트인 '대북이' 굿즈를 만들어 판매한 'HUG' 부스에서 박건재(IT융합 2) 학생은 "많은 학우들이 부스에 관심을 가져줘서 기쁘다. 굿즈 판매에서 생긴 수익으로 더 다양한 굿즈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 맛과 문화, 친환경이 어우러진 축제 '누리마실'

지난 5월 26일, 성북구가 성북로 일대에서 '제11회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이하 누리마실)'을 개최했다. 올해 누리마실 행사는 '문화다양성 잔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성북구를 비롯한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서 '친환경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편, 누리마실은 성북구 지역 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주민들에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다.

이날 축제는 ▲요리 ▲마켓 ▲공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로 각각 꾸며졌다. 이는 38개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세계음식요리사', 다양한 가치를 담은 아트상품을 선보이는 '지구만물장', 각 나라의 음식과 관련된 문화를 들려주는 '음식해설사', 나라마다 개성이 살아있는 예술품을 구경하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우주별별볼이더' 등의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한편, 축제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폐기

물을 줄이기 위한 '개인 용기 지참 캠페인'이 진행됐다. 미처 개인 용기를 가져오지 못한 주민에게는 텀블러, 보틀, 접시 등이 대여되기도 했다. 환경운동 시민단체 '녹색연합'과 청년들로 꾸려진 '누리마실 친구들'이 행사장에서 참여자들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도왔다.

이번 행사의 공식 서포터즈인 '누리마실 친구들'은 봉사활동 외에도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해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다. 폐기물을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활용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 '이름이 뭐예요?' 부스에서 활동한 박연미(서경대 4) 학생은 "재활용품으로 이름표를 만들었다"며 "활동을 통해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 기자사령

면 수습기자 권다빈(인문 1)

### 동정란

정성훈(기계전자공학부) 교수

정 교수는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리는 2019년 전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에서 김호중(산경 4) 학생과 같이 집필한 'SCON: 자기수렴 생생망' 논문을 발표한다.

한민규(상상력교양교육원) 교수

한 교수는 지난 5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선정한 'ICT국제표준마에스트로'에 위촉됐다.





**페이스북 페이지**  
@hansungpresscenter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ansungnews>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ansungnews



**에브리타임 학교 소식**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 총학생회 공약 이행, 귀추는 지켜보아야...

지난해 11월 진행된 총선거에서 총학생회 '등대'(이하 총학)는 핵심 공약으로 ▲SNS를 통한 교내 이슈 대응 및 활동 내역 공개 ▲정기 간담회 개최 및 비교과 포인트 지급 ▲양질의 취업특강 확충 ▲트랙제 진행으로 인해 바뀐 학과생 수강권 문제 해결 ▲시험기간 상상관 지하 2층 24시 개방 ▲셔틀버스 노선 증편 및 운행 시간 확대 ▲흡연부스 확대를 내걸었다. 총학 당선 이후 한 학기가 지난 현재, 총학 공약 이행률은 이행 중 3건(43%), 논의 중 2건(29%), 이행 불가 1건(14%)인 것으로 밝혀졌다.

7개의 핵심 공약 중, 지난 한 학기 동안 꾸준히 이행된 공약은 ▲SNS를 통한 교내 이슈 대응 및 활동 내역 공개 ▲시험기간 상상관 지하 2층 24시 개방 ▲흡연부스 확대다. 총학은 한성인재장학금 논란, 1차 수강신청 정정 시스템 오류, 교직원 사칭 사기판매 사건 등 다양한 교내 이슈에 대한 피드백을 총학생회 페이스북 등 커뮤니티에 게시해, 학우들의 의견을 해소하고자 했다.

'시험기간 상상관 지하 2층 24시 개방' 공약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연구관에 위치한 상상마루를 24시간 개방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총학은 추후 시험기간에도 이 공약을 이행할지에 대해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정호재(무역 4) 총학생회장은 "개방 당시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 앞으로의 개방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또, 6월 3일부터 상상파크 공사가 시작되면 상상마루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 추후 개방 여부를 확답하기 어렵다. 하지만 학우들이 원한다면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총학은 학우들의 흡연·비흡연권 보장을 위해 중문에 흡연 부스를 추가 설치했다. 탐구관 지하 1층 뒤뜰과 인성관 뒤에도 흡연 공간 설치를 계획 중이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대학본부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 중인 사업도 있다. 정 회장은 '양질의 취업특강 확충' 공약에 대해 "총동문회와 협력해 실무 경험이 있는 동문들을 강연자로 초청하려 한다. 현재 취업지원팀과 총동문회 사이

에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트랙제 진행으로 바뀐 학과생 수강권 문제 해결' 공약은 이번 학기에 디자인대학에서 발생했던 수강신청 문제 원인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 중이다. 당시 사태의 원인은 장바구니를 통한 강의 수요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과, 주·야간 일방에만 개설된 강의에 대한 주야 교차 수강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총학은 주야 교차 수강신청과

장바구니 용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정 회장은 "주·야간 중 일방에만 개설된 트랙 수강생들의 공평한 수강신청을 위해,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주야 수강신청 시간을 오전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다만, 수강신청 당일 인원이 몰리면 서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논의해볼 것"이라며 "장바구니 용도 개편에 대해서는 학사지원팀과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기 간담회 개최 및 비교과

포인트 지급' 공약은 부분 이행됐다. 총학은 지난 5월 21일 진행된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비교과 포인트를 5pt씩 지급했다. 하지만 간담회 개최 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장예준(사회과학 3) 부총학생회장은 "처음에는 한 달에 한번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내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고 간담회 참여자가 적어 필요성을 재고 중"이라며, "만약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는 두 달에 한번씩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셔틀버스 노선 증편 및 운행 시간 확대' 공약은 학교 예산상의 문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회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버스와의 인력 구비가 필수인데, 예산 소모가 너무 커 이행이 어렵다"며, "이 공약을 실행하지 못한 만큼, 다른 현실적인 공약들을 지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명아 기자  
mhbltd0330@naver.com

## '상상파크', 이달 착공 예정... 연구관 전시실·상상마루 탈바꿈

연구관에 설립되는 상상파크 공사가 6월 3일부터 착공해 9월 30일 완공될 예정이다. 상상파크는 지하 1층과 중층, 지상 1층으로 구성된다. 지하 1층에는 VR/AR센터가, 중층과 지상 1층에는 메이커 스페이스가 들어선다. 메이커 스페이스에는 3D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의 공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상상마루가 메이커 스페이스로 대체되며, 현재 연구관 1층에 상주하고 있는 CAPS 상황실은 다른 곳으로 이전될 계획이다.

대학본부는 상상마루 외에도 기존 연구관 전시실과 외부 공간을 상상파크로 개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종석(시설지원팀) 과장은 "이번 공사에서 연구관 1층 외부 스탠드를 실내공간으로 활용하고, 전시실을 분할해 추가 면적을 확보하며,

지하 1층 도로 옆까지 실내공간으로 증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상파크의 설립 목적에 대해 박 과장은 "상상파크를 통해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등 창의융합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상상파크는 기존에 운영하던 VR/AR센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동소문로에 있는 기존의 VR/AR센터는 우리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곳"이라며 "하지만 학교 외부에 위치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했다. 따라서 교내에 VR/AR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본부는 작년 11월부터 상상파크 건립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4월 19일 간담회에서 최진근 학생처장은 "우리학교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이후 교육부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를 운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VR/AR센터 및 메이커 스페이스를 짓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동준(시설지원팀) 팀장은 논의 과정에 대해 "작년 11월 VR/AR 관련 교수 8명이 위원회를 구성해 상상파크 조성 방안 등에 대해 회의했다. 회의 과정에서 연구관 전시실을 상상파크로 짓자는 의견이 채택됐고, 이는 올해 1월 이사회에 보고됐으며 2월 학사협의회와 3월 시설공관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상파크에 들어설 메이커 스페이스의 조감도

사진 제공 : 시설지원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상파크 공사로 인해 졸업 전시회에 차질이 빚어진 회화과의 경우, 다른 건물을 이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지윤(서양화 4) 회화과 비상대책위원장은 "상상관이나

지선관을 차선책으로 고려했지만, 상상관은 전시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지선관을 자체 비용으로 개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공사에 대해 박 과장은 "우리학교 중심인 연구관의

저층부가 개조됨으로써, 학교 이미지가 개선되고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 #한성 #타임라인

#### 제14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개최

지난 16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제14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재학생 336명이 참가했다. 이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을 시상할 계획이며, 수상자는 6월 7일 글쓰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상식은 6월 10일 사고와표현 연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대회는 ▲종이책 선호 현상 ▲빈부격차 심화 현상과 임팩트 투자 ▲인구 감소 원인 진단을 주제로 치러졌다. 이와 같은 주제 선정에 대해 이상혁(사고와표현교육과정)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극복 방법 및 전망을 고민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사는 1심·2심·본심, 총 3단계에 걸쳐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주제 내용 포함 여부 ▲독창적인 아이디어 ▲필자의 주장 및 논증 과정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본 대회와 관련해 이 교수는 "한성인 글쓰기 대회는 사회적 현상 및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견해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 생활관 홈페이지 개설돼

지난 5월, 우리학교는 기숙사 이용을 위한 '생활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신설된 생활관 홈페이지는 교내 기숙사를 통합 관리하고, ▲외박계 신청 ▲시설고장신고 ▲입주신청 ▲합격자 조회 ▲별점 및 상점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생활관 홈페이지는 학교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진경(상상빌리지 행정실) 실장은 "학생들에게 생활관 정보를 안내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빠른 행정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가 개설되면서 그동안 외박계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 행정실에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설고장 신고 후에는 수리 진행여부도 확인 가능하다. 공지사항에는 생활관에서 진행되는 행사 및 프로그램이 안내될 계획이다.

임 실장은 "준비단계에서 홈페이지 오류를 수차례 수정했지만, 개설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정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활관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 캠퍼스타운 사업단, '삼선유람' 개최

본교 캠퍼스타운 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성북문화원과 함께 오는 6월 5일까지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일대에서 '삼선유람'을 개최한다. '삼선유람'은 성북구의 지역문화예술축제로, '문화예술로 물든 성곽마을'을 주제로 한다. 본 행사는 지역주민의 활발하고 자발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축제는 주제에 맞춰 ▲에코백 삼선 그리기 ▲핸드메이드 소품 판매 ▲3D 프린팅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스마트 기가지체 체험 ▲한성대 학생들의 캐리커처 행사 ▲역사문화 해설사의 성곽마을 해설투어 외에 다양한 공연 등으로 꾸려진다.

그중 '역사문화 해설사의 성곽마을 해설투어(이하 투어)'에는 사업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전문 역사해설사가 함께한다. 투어는 약 60분간 진행되며, 한성대입구역 부근부터 한양도성의 낙산 성곽까지 걷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해 박지수(캠퍼스타운 사업단) 연구원은 "삼선유람은 지역 주민 및 우리학교 재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삼선동 고유의 축제"라며 "학생들이 이 자리에서 마을이 문화예술로 물드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 술잔은 비우고 마음은 채우고... 달라지는 대학 음주

작년 5월, 대학가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주류 판매가 모두 금지된 것이다. 이는 같은 달 인하대학교 자치기구가 축제 기간에 학생주점에서 술을 판매한 사실이 '무면허 주류 판매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그리고 지금, 대학가에는 또 다른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술을 강권했던 문화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문화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어떤 연유로 나타나고 있는 걸까?

### 안전선을 넘어버린 음주행태

아이러니하게도 답은 대학생들의 음주문화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가 발표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음주행태 심층조사'에 따르면, '매달 음주'를 하는 대학생은 총 5,024명 중 3,788명(75.4%)에 달했다. 하루 음주량으로는 남학생 1,089명(44%), 여학생 837명(33%)이 한 자리에서 소주를 10잔 이상 마신다고 나타났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정의한 고위험 음주가 1회 평균 7잔 이상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다.

또한 술을 마시라는 강요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1,592명

(31.7%)으로, 3명 중 1명꼴로 밝혀졌다. 아직까지 신입생 환영회나 MT 등 각종 모임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음주를 강요하는 풍조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교내 술자리 횟수를 줄이고자 신입생 환영회나 MT 등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여전히 각종 행사에서 술을 빼놓지 않고 소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고위험 음주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음주량이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는 점이다. 결국 올바른 음주 인식이 갖춰지지 않은 탓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셈이다. 이에 박은철(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는 캠퍼스 내 음주정책이나 음주 예방 관련 프로그램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제고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 건전한 음주를 위한 움직임

이에 따라 올해 대학가는 주체적이고 부담 없는 술자리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술 강권 금지 팔찌(이하 술 팔찌)'다. 술 팔찌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학생도 행사에 편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 취지에서 시작했다.



팔찌 색깔로 술을 마실 사람과 마시지 않을 사람을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이때 노란색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 분홍색은 '적당히 마시겠다', 검은색은 '충분히 마실 수 있다'를 뜻한다.

술 팔찌는 올해 송실대학교 총학생회가 간부수련회를 시작으로 신입생 환영회에서까지 활발히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취지에 맞는 효과를 톡톡히 입증하기도 했다. 권슬기(송실대학교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신입생이 처음 보는 선배에게 술을 그만 먹고 싶다고 말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팔찌로 규칙을 만들고 나서 신입생들 사이에서 술자리 부담이 적어 좋다는 반응이 있었다. 노란 팔찌를 착용한 행사에 편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한 취지에서 시작했다."

한편, 술 팔찌에 대해 장성민(연세

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팔찌를 제공함으로써 음주를 강요하는 문화가 조금이라도 사라진다면 그것이 대학 내 음주문화를 바꾸는 데 크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서로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등 선배와 동기들의 배려심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더 나은 음주문화를 위해

향후 대학가 음주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장 교수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에서 캠퍼스 내 음주를 금지하고, 주류 회사의 주류 스폰서십도 금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현재 보건당국과 교육청, 그리고 대학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주류 회사는 대학생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 관측행위를 하고 있다. 전문가와 정부, 교육청 및 대학이 정책을 도입해 대학가에서 올바른 음주 풍토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리주'라는 이름 아래 술을 강요했던 문화에서 술 팔찌를 이용해 자유로운 음주가 가능하기까지. 이제 대학가는 앞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적 인식과, 아직까지 남아 있는 술 문화 사이의 괴리 해결이라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술자리는 과연 가능할까?

정수민 기자  
sfl1228@naver.com



## 격화되는 미중 무역 분쟁, 승자 없는 대결 되나

지난 5월 9·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벌인 미·중 무역 협상이 성과 없는 '노딜'로 끝났다. 당초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했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무역 분쟁의 배경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 미국 우선주의란 미국이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펼치고 있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말한다. 실제로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증가 중이고, 그중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에 이른다. 이에 미국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물품에 '보복관세'를 매겨 견제하려 한 것이다.

이번 협상이 결렬된 주원인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외국기업 기술이전 요구 방지 등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이이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지적하며 법률 개정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협상 중인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협상 결렬 직후 나머지 중국 제품 3,25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물리는 절차에 들어갔다. '모 아니면 도(go big or go home)' 정책을 택한 것이다. 이에 중국 역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중 무역 협상은 어떻게 전망될까. 이에

대해 최원목(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은 단기적 이익을 얻고 중국은 단기적 손해를 보게 되며, 협상이 결렬되면 양국 모두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 이해관계를 생각해보면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은 이익보다 손해가 클 것"이라고 예측했다. 협상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의 보호무역은 계속될 것이고, 높은 관세로 인해 결국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은 중국 제품을 값싸게 수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에 육박한다. 두 나라에 대한 국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양국의 '피투기' 분쟁이 자연스레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로 이어진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우리학교 김상봉(사회과학부) 교수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0.2~0.8% 정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다양한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중)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희연 기자  
heeeyun96@naver.com



## 총동아리연합회 인권복지국 알콜귀요미팔찌 사용 매뉴얼



### 오늘은 안 마실래요!

술을 마시지 않는  
부원들이 착용합니다.  
물이나 음료로 즐겨요!



### 오늘은 마셔볼까요?

얼굴이 이 색이 되면 끝!  
오늘 기분 좋게 취한  
부원들이 착용합니다.



### 오늘은 끝까지 간다.

제대로 취해버릴 부원이  
착용합니다.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에서 배포한 술 팔찌 사용설명서. 왼쪽부터 노랑, 빨강, 검정 순으로 색을 구분해 원하는 음주량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자료출처 : 연세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 칼 빼든 교육부, 사학 비리 근절할 수 있을까

최근 대학가가 사학 비리 소식으로 시끄럽다. 지난 5월 8일, 교육부가 실시한 회계감사에서 고려대학교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교직원들이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교직원의 퇴직 선물인 '황금 열쇠'를 구입하는 데 540만 원 상당의 교비를 사용하고, 630만 원 상당의 유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총 22건의 회계 비리를 저질렀다.

또한, 명지대학교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10년 전의 사학 비리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했다. 2009년, 명지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유영구 씨가 자신이 소유한 회사인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명지학원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또한,

명지대학교와 명지학원이 총 10건의 회계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도 교육부의 회계감사에서 드러났다.

이런 사학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사학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학 비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발맞춰, 최근 교육부는 기존 1년에 3곳의 사학재단을 조사했던 '종합감사' 대상을 5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종합감사는 입사·학사·인사·예산·회계 등 사학 운영 전반을 살피는 감사로, 앞서 언급한 회계감사보다 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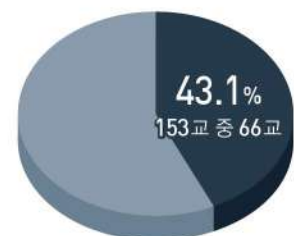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요은(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종합감사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하지만 아직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학재단이 많다. 1년에 5곳을 감사하더라도 모든 사립학교를 감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대학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실시한 이력이 없는 곳은 일반 사립대학 153교 중 66교(43.1%), 사립 전문대학 128교 중 55교(43.0%)에 달한다. 매년 5곳을 종합감사 한다고 해도 모든 대학을 한 번씩 감사하는 데만 24년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종합감사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해 추가적인 감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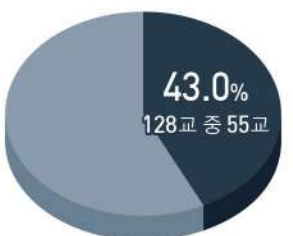
진행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인력을 당장 총원할 수는 없었지만, 교육부는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달 8일 교육부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감사관은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등 개별 학교현장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다. 유 장관은 "시민감사관 도입은 교육부의 사학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시민감사관이 도입되면 감사 인력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감사관이 놓친 부분을 시민감사관이 잡아내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학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 일반대학



대학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 전문대학



자료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DB

올해 첫 종합감사 대상은 세종대학교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세종대학교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감사했다. 감사는 2016년 이후 법인 및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세종대

학교를 시작으로 한 이번 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성공적인 사학 비리 근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 의식있는 패션의 조건, 컨셔스 패션

환경문제가 날로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또한 변화하고 있다. 폐비닐 최소화, 플라스틱 프리(Plastic-free) 운동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의류산업에도 친환경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이에 패션업계는 '의식있는 패션' 즉, 컨셔스 패션(Conscious Fashion)을 선보이고 있는데, 만약 좀 '깨어있는' 소비자라면 한 번쯤 이 패션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100% 유기농 순면 원단으로 만들어진 셔츠  
사진 제공 : 파타고니아 코리아

컨셔스 패션은 '의식있는'이란 뜻의 컨셔스(conscious)와 패션(fashion)이 합쳐진 신조어로, 원단 생산부터 재단 과정에 이르는 의류 생산과정은 물론, 재활용 과정까지 친환경적이면서도 윤리적인 패션을 일컫는다. 단적인 예로, 가장 많이 쓰이는 원단 중 하나인 면의 경우, 목화를 대량으로 재배하기 위해 대량의 농약을 사용한다. 하지만 농약은 토지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친환경 의류 기업들은 농약 없이 유기농 재배법으로 목화를 생산한다. 또한, 소비자에 의해 버려진 의류와 자투리 원단을 재조합해 만드는 것도 이런 컨셔스 패션에 포함된다.

기존에 친환경 의류를 생산하는 브랜드인 '파타고니아' 외에도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 등 기업들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친환경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SPA브랜드의 등장으로 컨셔스 패션의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안현주(글로벌패션학부) 교수는 "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그린 캠페인(Green campaign),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등의 이름으로 환경운동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면서 "컨셔스 패션도 이러한 운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컨셔스 패션은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의류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한다면 소비자는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기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업은 공정무역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기부를 하는 형태로 컨셔스 패션에 기여한다. 이와 관련해 김광현(파타고니아 코리아 환경팀) 차장은 "기업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동시에 소비자는 그 브랜드를 선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들은 컨셔스 패션을 주목하는 것일까. 안 교수는 "환경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는 소비자층은 컨셔스 패션이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젊은 층의 경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 새로운 패션을 받아들이기 상대적으로 쉽다고 해석된다.

## 버려진 것의 재조합

패션업계에선 보통 계절마다 그 계절에 맞는 계절상품이 출시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판매하지 못한 의류는 이월상품으로 재판매가 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엔 소각한다. 이렇게 되면 화학 염색 물질 사용을 거친 생산과정과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소각과정을 거치며 환경을 두 번 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중고의류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코오롱 FnC 레:코드(RE:CODE)의 '인벤토리 컬렉션'은 생산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해체해 새로운 옷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는 라인업이다. 더불어 기간이 지난 군대용 텐트, 낙하산 등 군용품의 원단을 재사용해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밀리터리 컬렉션'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컬렉션은 계절별로 출시되며, 트렌드에도 뒤처지지 않는 패셔너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 점퍼의 모자 부분을 재활용한 가방  
사진 제공 : RE:CODE

## 청바지와 수질오염의 상관관계

여름철 자주 입게 되는 티셔츠는 대부분 면섬유다. 면의 원료인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농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많은 양의 물이 쓰인다. 또한, 청바지를 염색할 때 쓰이는 인디고 염료는 많은 생활용수를 사용한다. 인디고 염료는 색이 한번에 입혀지지 않아 염색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염색이 더욱 잘되도록 행궁과 세척을 거듭한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생활용수가 쓰이는 것이다. 이같이 쓰인 생활용수는 폐수가 되어 더 이상 재활용하지 못한 채 방류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자연에 피해를 적게 미치는 '헴프(Hemp)' 원단을 사용하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헴프는 마섬유로 만든 원단으로, 물로 염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농약과 화학비료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헴프 원단을 사용한 바지, 티셔츠 등은 통기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촉감도 부드러워 면을 대체할 훌륭한 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가치를 더하는 업사이클링

컨셔스 패션은 기본 제품에서 가치를 재창조한 제품 즉,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겨울 의류에 주로 사용되는 울도 업사이클링이 가능하다. 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양을 대규모로 방목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타고니아에서는 폐의류의 울을 업사이클링하고 있다. 덕분에 양 방목에 필요한 토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한편, 컨셔스 패션은 옷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발도 컨셔스 패션의 일부이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러닝화 와 스포츠 의류를 선보였다. 이 브랜드는 점차 페플라스틱과 같은 재료의 비율을 늘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진 제공 : 파타고니아 코리아

## 나무로 옷을 만든다고?

흔히 종이로 사용되는 나무 펄프, 이 나무 펄프로 옷의 원단이 될 수 있다. 바로 파타고니아의 '리피브라 리오셀(REFIBRA™ lyocell)' 원단이다. 리피브라 리오셀은 원단의 일부를 나무 펄프로 대체함으로써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화학 원료의 양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리피브라 리오셀과 같이 자연친화적인 원료는 재활용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은 "리피브라 리오셀은 펄프와 같은 재료들을 정화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SPA브랜드 역시 컨셔스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H&M은 울해 파인애플 잎에서 추출한 셀룰로스 소재의 재킷·부츠와, 오렌지 섬유로 만든 드레스 등을 출시했다. 이 밖에도 옥수수, 황토, 솜 등을 활용한 신소재 원단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사진 제공 : 파타고니아 코리아



# 당신의 기록은 안전한가 :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를 찾았고,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가? 또 당신의 오늘은 어디에, 어떻게 남겨졌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스스로의 흔적을 기록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의해 기록되기도 한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겨진 기록들은 보안이라는 명목 하에 끊임없이 분석되고, 분류되고, 규정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것일까, 감시당하고 있는 것일까? 개개인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기계로부터 포착되고 규정되는 현대의 '대량감시 사회'에 의문을 던지는 전시 '보안이 강화되었습니다'가 코리아나 미술관에서 7월 6일까지 개최된다. 이 전시에서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보안과 감시에 대한 고찰이 담긴 작가 9팀의 작품을 성인 4,000원, 학생 3,0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서지는 큐레이터는 "감시는 현대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지만, 오늘날의 감시는 비가시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처럼 현대의 특수한 감시 체제에서 살아가는 아들에게 시사점을 던지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지하 1층 전시실 왼쪽에 보이는 이은희 작가의 <콘트라스트 오브 유>는 감시, 혹은 보안 시스템에 속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재구성해 기계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영상에서는 안면인식 시스템으로부터 은행 강도라고 인식돼 두 번이나 체포된 남성, 뉴질랜드 자동 여권 발급 시스템으로부터 대상의 눈이 감겨있 다며 여권 발급을 거절당한 동양인 등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감시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되어버린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기계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한다.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마련된 상영관에서 는 슈빙의 <잠자리의 눈>이라는 영화를 짧 게 편집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러닝타임 이 81분인 이 영화는 중국 각지에서 촬영된 CCTV영상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짜깁기해 만들어졌다. 이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감시의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이외에도 신정균 작가와 E팀이 영상을 통해 각각 관객에게 디지털 감시와 위장, 기계적 시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정면의 작은 방 에 가득 차있는 에반 로스의 <자화상 : 2019년 3월 27일>이라는 작품을 볼 수 있다. 작가는 3월 한 달간 자신의 노트북에 남겨진 인터넷 캐시 데이터(자주 접근하는 데이터)를 시트지에 출력해 벽에 붙여 작품을 구성했다. 이는 사용자의 취향, 관심사를

모두 담고 있는 인터넷 활동 기록이 현대에 서 개인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한편, 사소한 사생활마저도 데이터 감시의 영역이 될 수 있음을 시각화해 보여준다.

이뿐만 아니라 쌍둥이 작가 제인·루이스 윌슨과 한경우는 기계를 통해 이뤄지는 감시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영상으로 표현했다. 또한 아담 브롬버그·차나린, 한국 작가 듀오 '언메이크 랩'은 인간의 신체를 사진으로 나타내 기계적 인식의 한계를 드러 냈다.

안전을 위해 점점 보안이 강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계의 눈에 노출된다. 과연 우리는 기술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일까. 당신의 기록은 오늘 무엇으로 규정되었나?

정영아 기자  
mhbt0330@naver.com



▲슈빙 <잠자리의 눈>, 2017



▲에반 로스 <자화상 : 2019년 3월 27일>, 2019

# ‘가슴 뛰는’ 일을 찾던 청년, 한국을 알리다

## 5SECONDS 대표 남석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어느 대학생의 버킷리스트에 소망 한줄이 새겨졌다. 바로 ‘방학마다 해외여행가기’였다. 약간은 무모하면서도 당당한 이 소망은 그의 목표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이뤄냈다.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면서 말이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 7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 5SECONDS의 남석현 대표가 바로 ‘그다’.

“방학마다 해외여행을 다녔던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의 계획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금 마련’이다. 하지만 평소 전공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몸이 두 개라도 부족했던 남 씨. 그는 문득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에 이른다. “교내 활동을 활용해서 여행 자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노트북에 학교 홈페이지를 항상 띄워놓고 공지에 올라오는 대화나 프로그램에 타치는

대로 참여했어요. 이렇게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장학금을 받게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장학금 명단마다 제 이름이 빠지지 않으니깐 학교에서 전산 오류가 아니냐며 의심한 적도 있었어요(웃음).”

그렇게 처음으로 간 여행지는 프랑스 파리. 남 씨는 낯선 땅에 첫발을 내딛었던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제게 ‘니하오’, ‘곤니찌와’라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게 나쁜 행동은 아니지만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내심 속상했죠. 한국이 좀 더 유명했다면 그들에게 ‘안녕’이라는 인사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열정이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더라고요.”

그는 곧장 마트로 달려가 티셔츠와 매직등을 구매했다. 그리고 한국을 알릴 수 있도록 티셔츠를 꾸며 여행 기간 동안 입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는 이에 더해 독도와

동해를 국제적으로 알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기에 이른다. 남 씨는 외국인들에게 독도와 동해를 설명하기 위해 반세 한영사진을 들춰보며 이를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정리해 들고 다니기도 했다. 이것이 그가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사실 두렵기도 했어요. 일본인 여행객이나 동양인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다툼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 ‘그래,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12개국을 돌아다녔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 씨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겼다. 바로 ‘취업을 할 것인가와 ‘나만의 길을 개척할 것인가’였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갈등했다.

“저는 제가 제 전공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먼저 나서서 사람들을 이끄는 걸 좋아하고 일을 벌여놓고 그것을 수습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연구실에 앉아있는 제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벌이기’를 하자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이후 남 씨는 ‘세이울’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조직해 한국을 해외에 알렸고,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외교 활동도 했다. 하지만 그는 활동을 거듭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의 한계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수익을 창출해야 단체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데, 이를 정보부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수익창출이 힘든 외교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더 애매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공모 사업에 지원했고, 사업에 선정되면서 창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설립한 5SECONDS는 현재 4개의 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코리아안브로스’는 관광과 문화, ‘글로벌 코리아안브로스’는 사회적 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활동 개척, ‘팀브라더스’는 소상공인과 골목시장, ‘야신야덕’은 청소년 야구 생태계를 다루고 있다. 이 채널들은 모두 남 대표의 철학을 공유한다.

“저의 비전은 미디어로 사람들에게 선행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 영향력이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다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예요. 다른 이들이 어떤 식으로든 선행 영향력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제 목표는 200% 이룬 거나 다름없어요.”

5SECONDS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유튜브 교육 컨설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저희는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에요. 저 역시 사회적 기업의 홍보 측면에서 한계와

실패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놓인 기업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커요. 사회적 기업이나 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색깔을 가진 유튜브 채널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5SECONDS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남 대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오픈라인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머무를 수 있는 하나의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싶어요. 그 공간이 사무실로 쓰일지, 촬영 스튜디오로 쓰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도 남 대표의 버킷리스트엔 새로운 소망이 새겨졌다 지워졌다를 반복하고 있다.

**\* 예비 사회적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코리아안브로스’의 스튜디오. 줄리아(좌)와 가이(우)가 촬영에 임하고 있다.

# 일사귀가 머금은 향기로 세상을 가득 채울 때까지

## 시인 이진호

노란 봄 뽕내는 꽃들 사이  
풀이 죽은 자색 꽃 하나

보이는 대로 믿었기에  
마냥 못한 꽃인 줄 알았는데,

이듬달 마주한 그 꽃은  
보라빛 독무대를 꾸렸더라

봄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더 푸른 너의 봄을

-이진호, 「앞에」

노란 봄에 풀죽어있던 자색 꽃이 자신만의 봄을 맞아 독무대를 꾸미듯, 보라빛 향기를 머금고 개화(開花)할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시인 이진호(경영 4) 씨다.

이 씨는 작년 서울시인협회에서 선정한 제 1회 SNS시인상에서 대상을 수상해 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얼핏 감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영학도가 등단이라니, 그는 어떤 연유로 시를 쓰게 된 것일까. 봄과 여름 그 사이 어디쯤의 오후, 조금은 특이한 이력을 가진 그를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 그러던 와중, 군복무 시절 쫓비가 등장하는 한 영화를 보게 됐고, 내가 써도 저것보다는 잘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 쫓비를 소재로 처음 소설을 썼다고 한다. 그때를 기점으로 그는 본격적으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 특히, 소설에 흥미를 느낀 그는 군제대 후 우리학교 문학동아리 ‘이무기에’에 입부했다.

“처음에는 시보다 소설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오랫동안 만난 연인과 헤어지게 됐는데,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찾다가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를 쓰기 시작한 이 씨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

페이스북에 가명으로 시를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를 지인들이고만 공유했었는데, 조금씩 세간의 관심을 끌며 SNS에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시작이 사랑이었기 때문일까. 그의 시는 대부분 사랑과 이별을 소재로 한다. 이 씨는 연인, 친구, 가족 등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모두 사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시에 담아내며 자신의 마음을 비워낸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가장 애착이 가는 시로 친구와의 이별을 담은 〈가시〉를 꼽았다.

그는 “이 시에서는 인간관계를 면도에 비유했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무리가 있었는데, 정말 사소한 일로 싸워 이젠 다 같이 볼 수 없게 됐고 그 일 때문에 이 시를 썼죠.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처음에는 마음에 상처도 나고 아프지만 반복하다보면 상처에 무너지고 익숙해지는 점이 면도와 유사하다고 느꼈거든요”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5월, 동료 시인들과 함께 발매한 시집 〈남이 되어가는, 우리〉의 본인 파트 소재목을 ‘못난 꽃도 봄을 기다린다고’ 지었다. 그에게 소재목의 의미를 묻자, 그는 “‘못난 꽃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제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꽃이 봄을 기다리듯 제가 가진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저도 언젠가는 제 능력을 꽃피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시 쓰기도 그 과정 중에 하나고요”라며 웃어보였다.

그렇다면 그는 활짝 피어난 미래에도 여전히 ‘시인 이진호’일까. 이 씨는 이렇게 답했다.

“시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글을 쓴다는 특기를 살려 잡지사 취업을 준비 중이에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시인 활동을 병행하고 싶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목표일 ‘시인’이 그에게는 또 다른 봄을 맞을 발판인 것이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머금어 공명해진다. 과연 이 발판을 딛고 봄을 맞아 활짝 핀 못난 꽃은 어떤 향기로 세상을 가득 채울까.

정명아 기자

mhbtd0330@naver.com



### 가시

사람을 처음 잃었을 즈음  
턱에는 가시가 박혔다

온전히 두기에는  
스스로 가엾게 여겼기에

불그죽죽 모질게 깎아낸  
그늘음은 항상 내 것이었다

낡은 달력을 버릴수록  
역센 가시는 늘어났지만

몇 포기 자란 미련일랑,  
깎아내는 것이 어렵진 않더라

어느새 어른이 된 까닭으로



# 제13회 사진공모전



시간

**작품 설명** | 2018년 중국 광저우에 갔을 때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좋아하는 문구가 떠오라 찍었습니다. "그즈음 창밖을 내다보면 뭔가 지나가는 게 언뜻언뜻 눈에 보였다. 바빠 돌아 찍었습니다. "그즈음 창밖을 내다보면 뭔가 지나가는 게 언뜻언뜻 눈에 보였다. 바빠 돌아 찍었습니다. "그즈음 창밖을 내다보면 뭔가 지나가는 게 언뜻언뜻 눈에 보였다. 바빠 돌아 찍었습니다."



최우수작



강예은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3)

## 시간은 흐르고, 사진은 남는다

사람들이 남는 건 사진과 글뿐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사진과 글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선된 <시간>은 풍경뿐만 아니라 글, 그리고 저의 '시간'이 담긴 작품입니다. 작년 12월 중국 광저우 답사 여행, 같은 시간을 나와 다르게 채워가고 있는 사람들을 버스 안에서 구경하던 저녁, 그 풍경을 찍던 참, 공모전 포스터를 보게 된 날, 공모전에 응모할 사진들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던 기다림의 시간. 이 사진에 저의 많은 시간들과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추후만 할 수 있는 사진 속 저 사람들의 시간들도 함께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흐르나, 사진은 남는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품 설명에 인용된 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입니다. 버스 안에서 보는 지나치는 바깥 풍경이 마치 흘러가는 시간과 같았고, 마침 그 글이 떠올랐고, 사진을 찍었고, 결과적으로는 사진과 절묘하게 '참 잘 어울리는 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사진과 좋아하는 글, 결국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더해져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또 그것들과 함께하는 시간들도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바람과 같은 청춘의 세월 속에, 머뭇거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했던 하나의 도전이 제게 기쁨으로 돌아와 공모전에 응모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대학생활에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신 한성대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이런 귀한 기회가 없었다면 아마추어 수준도 안 되는 한 명의 대학생이 찍은 사진은 그저 개인 앨범에만 담겨 가끔 훑어보는 사진에 불과했을 것 같습니다. 제 시선과 시간이 담긴 한 사진이 좋은 기회를 만나 좋은 추억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어떤 구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처럼, 부족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진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제 사진이 보시기에 좋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가작



임지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2)

00060210

수상소감

고등학교 때 처음 사진을 찍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사진을 찍는 것에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중 가장 마음 가는 사진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고, 이런 기회에 처음 참가하여 받게 되는 상인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될 누군가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른 소개보다도 좋은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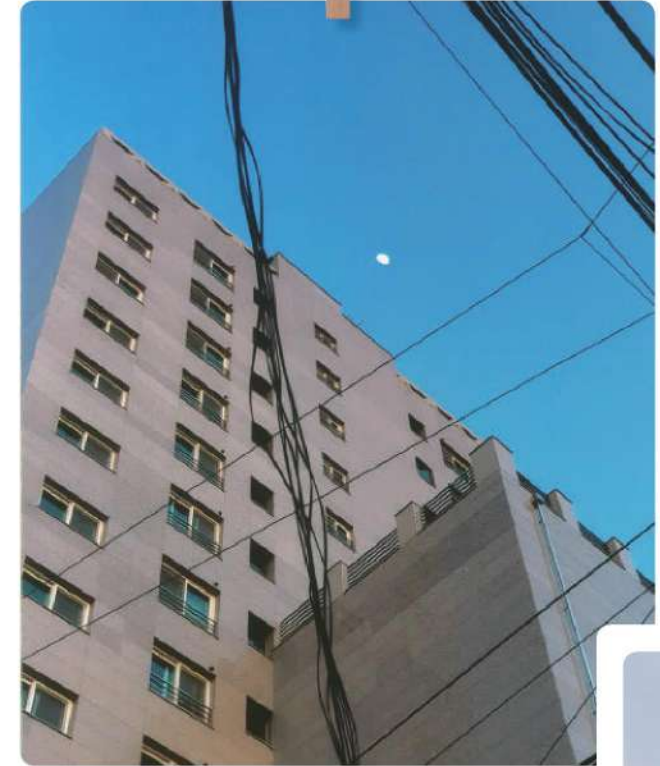
<p>흘러진 그림자들, 모두 한곳으로 모이는 그 어두운 정오의 숲속으로 이따금 나는 한 개 짙은 그림자가 되어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쉽게 조용해지는 나의 빈 손바닥 위에 가을은 둥글고 단단한 공기를 쥐어줄 뿐 그리고 나는 잠깐 동안 그것을 만져볼 뿐이다 나무들은 언제나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작은 이파리들을 떨구지만 나의 희망은 이미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p> <p>너무 어두워지면 모든 추억들은 갑자기 거칠어진다 내 뒤에 있는 캄캄하고 필연적인 힘들에 쫓기며 나는 내 침묵의 심재를 조금 낚는다 공중의 나뭇잎 수효만큼 검은</p>	<p>웃을 입은 햇빛들 속에서 나는 꿈같이 내 어두움을 생각한다. 어디선가 길다란 연가들이 날리와 희미한 언덕을 만든다. 빠짐없이 되살아나는 내 젊은 날의 저녁들 때문이다</p> <p>한때 절망이 내 삶의 전부였던 적이 있었다 그 절망의 내용조차 잊어버린 지금 나는 내 삶의 대부분도 알지 못한다 이미 대지의 맛에 익숙해진 나뭇잎들은 내 초라한 위기의 발목 근처로 어지럽게 떨어진다 오오, 그리운 생각들이란 얼마나 죽음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나 내 사랑하는 시월의 숲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p>
--	---

- 나희덕, <시월>



Beso-Beso

**작품 설명** | Beso-beso란 (인사로 하는) 입맞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끼리 입맞춤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낮달-1

**작품 설명** | 마땅한 카메라가 없는 저는 달 사진을 항상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는 밤에 뜬 달보다는 낮에 뜬 달을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찍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사진첩에는 낮달 사진이 많습니다. 계속 보다보니 달은 밤 하늘색보다는 저녁 하늘색과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고은(회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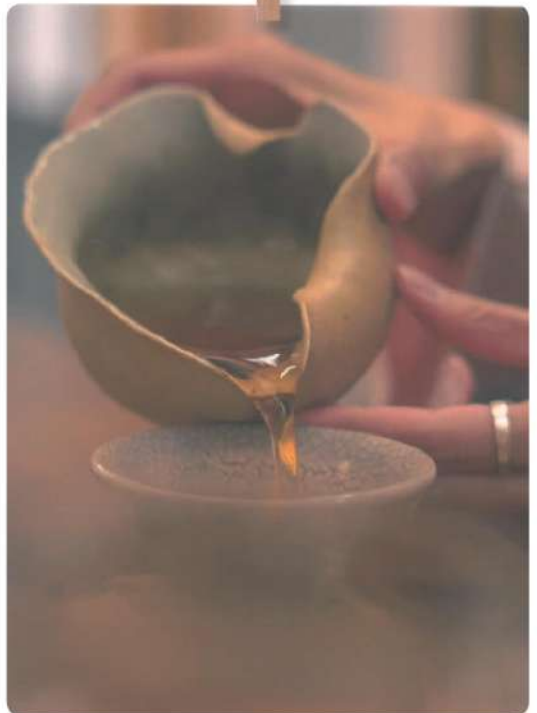


Rock'n'roll

**작품 설명** | 한성대학교 중앙밴드동아리 왕산악의 공연 모습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로커의 모습과 빨간색 조명과 파란색 조명이 잘 조화되도록 촬영했습니다.

최성훈(인문 3)

후에 온 송풍작들



잔이 예쁜 건, 마음이 예뻐서 그래요

**작품 설명** | 친구들과 간 강원도 여행에서 가게 된 한 산속 마을의 카페 사장님께서 내주시 컵잔을 보고 예쁘다고 한 저희에게 대답해주신 말씀입니다.

심기선(경영 3)



무제

**작품 설명** | 2017년 겨울, 삿포로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진을 보면 하고 있던 생각들도 멈추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어 굳이 제목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무제로 했습니다. 생각의 심을 얻게 되는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강예은(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3)

## 심사평



심사위원 이준수 교수 (신구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이력사항**

2018년 ~ 현재 신구대학교 학과장  
 2018년 ~ 현재 (주)미디어브리지 VDCM 자문위원  
 2014년 ~ 2016년 신구대학교 정보미디어학부 학부장  
 2012년 ~ 2014년 국방부 군무원 채용시험 문제 출제 및 검토위원  
 2010년 ~ 2012년 한국사진학회 편집위원  
 2009년 ~ 2010년 아시아민족조형학회 이사  
 2005년 ~ 2007년 한국미술진흥재단 학술지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심사위원  
 2003년 ~ 2007년 한국사진영상학회 교육제도분과 위원장  
 1999년 ~ 2000년 JUNE LEE STUDIO 대표  
 1998년 ~ 1999년 (주)디지털타임 포토디렉터  
 1995년 ~ 1996년 AUTO NET 매거진 LA소재 사진편집장

## “의미 있는 사색과 멋진 추억”

올해로 열세 번째인 한성대신문이 주최하는 사진공모전에 출품한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의 당선작 선정기준은 사진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소화했는지, 사진의 구성과 구도는 내용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사진의 내용에 맞는 촬영 기술은 잘 적용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었는지를 각각 평가하여 우수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48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여러 훌륭한 작품들 중 가장 우수하게 평가한 최우수상 1점과 그 다음으로 우수하게 평가된 가작 1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최성훈(인문 3) 전공 3학년이 재학 중인 강예은 학생의 <시간>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중국 광저우 여행 중 촬영했다는 이 작품은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밤풍경을 적당한 셔터속도로 절묘하게 촬영된 수작으로 평가됩니다. 화려한 전경과 거리를 지나는 도시민들의 모습이 작가가 언급한 “그즈음 창밖을 내다보면 뭔가 지나가는 게 언뜻언뜻 눈에 보였다. 바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이었다.”라는 문구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전경의 움직임과 사람들의 정지된 이미지가 장면의 극적 효과를 이뤄낸 수작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영예인 가작은 패션디자인과 2학년 임지윤 학생의 <Beso-Beso>가 선정되었습니다. 입맞춤이라는 뜻을 가진 <Beso-Beso>는 두 구루의 나무가 서로 붙어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음화로운 표현한 사진입니다. 작가는 이 장면에서 마치 나무끼리 서로 입맞춤을 나누는 것과 같이 의인화하여 좀 더 주인공처럼 보이도록 음화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연에서 피사체를 대할 때 단지 피사적으로만 보거나

단 그 대상과 좀 더 제고하고 깊게 있게 교감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사진이 좋은 본보기로 보입니다.

수상은 못하였으나 아쉬움이 남는 작품들 중에는 허고은의 <낮달-1>, 최성훈의 <Rock'n'roll>, 심기선의 <잔이 예쁜 건, 마음이 예뻐서 그래요>, 강예은의 <무제> 등이 있었습니다.

회색 빌딩과 얼기설기 얽힌 전경들 사이로 비추인 달의 모습을 촬영한 허고은의 <낮달-1>은 마치 현실의 답답함과 희망을 한 장면에 잘 반영한 사진으로 일컬어집니다. 단지 프레임안의 이미지 구성과 시각적 효과가 다소 미묘한 것이 아쉬웠고, 최성훈의 <Rock'n'roll>은 보컬을 주인공으로 밴드 동여미의 공연 모습을 역동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빨강과 파란 조명이 색상의 대비를 이루어 열광하는 보컬에 임팩트를 더하고 있지만 장면 안에 보컬의 모습만 보여 예쁘게 보이는 밴드 동아리 공연의 느낌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심기선의 <잔이 예쁜 건, 마음이 예뻐서 그래요>는 차를 따르는 찻잔과 컵을 적절히 셔터속도와 조리개로 느긋 있게 클로즈업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전경이나 배경에 차 마시는 분위기를 더해주는 디테일과 주전자 같은 이미지가 더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삿포로의 겨울 풍경을 담은 강예은의 또 다른 사진 <무제>는 원경의 숲을 순백의 단순미로 표현하여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주는 좋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상의 사진들은 수상작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그 밖의 작품들도 하나하나가 각각의 의미와 추억을 담은 훌륭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의미 있는 사색과 멋진 추억을 여러분의 카메라와 가슴속에 마음껏 담길 바라며, 작은 기쁨의 차이에 선정되지 못한 많은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 무의식 세계의 꿈, 욕망의 문을 두드리다

당신은 지난밤 어떤 꿈을 꾸었는가? 꿈을 꿨다는 사실은 어렵듯이 기억나더라도 생생하게 모든 장면을 설명하기는 힘들 것이다. 기분 좋은 꿈도 있지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기상천외한 스토리까지... 악몽을 꾸고 나서 소위 '개꿈'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 어딘가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꿈을 꾸는 걸까? 또, 꿈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 억압의 시대 속 욕망의 분출구

뇌과학이 학문적 정체성을 갖추지 않은 100년 전,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프로이트는 꿈의 해답을 '무의식'에서 찾았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개인의 성적 욕망은 물론이고 분노의 표출까지 제한당하는 금욕의 시대였다. 이창재(프로이트정신분석연구소) 소장은 "이같은 사회적 억압은 그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주로 욕망을 충족하는 꿈을 꾸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프로이트는 특별히 두드러지는 특징이나 양상을 보이지 않는 '평범한 꿈'조차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꿈은 무의미한 작용이거나 '초자연적 계시'라는 당대의 통념에 맞서 꿈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저서 '꿈의 해석'을 쓰기 위해 총 223개의 꿈을 분석하여 '정신분석학'을 창시했다.

## 의식을 피한 무의식의 '욕망적 표상'

프로이트는 꿈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욕망'과 '무의식'에 주목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나 현실은 그 모든 욕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욕망이 무의식을 통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꿈은 완벽한 심리적 현상이며, 정확히 말해 소원 성취"라고 말했다. 또 '꿈의 해석'에 의하면, 꿈이란 의식의 검열을 피해 은폐된 기억이 낯선 표상들로 형상화되면서 또 하나의 의식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의식이 사회적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면, 꿈은 무의식으로서 인간의 '진정한 욕망'을 보여주는 세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꿈에 등장하는 일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과 본능적 행위는 무의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석(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꿈은 소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다"며 "인간의 욕망이 제한 없이 충족된다면 꿈을 꿀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즉, 욕망은 의식 세계에서 추방당하고 억압당하지만, 소멸되지 않고 꿈을 통해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항상 꿈을 꾸는 걸까? 프로이트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무의식은 의식을 불편해한다"며 "의식이 꿈의 내용을 기억하려 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이를 망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우리 모두는 매일 꿈을 꾸지만, 무의식에 의해 꿈을 꿨다는 사실을 망각해 '꿈을 꾸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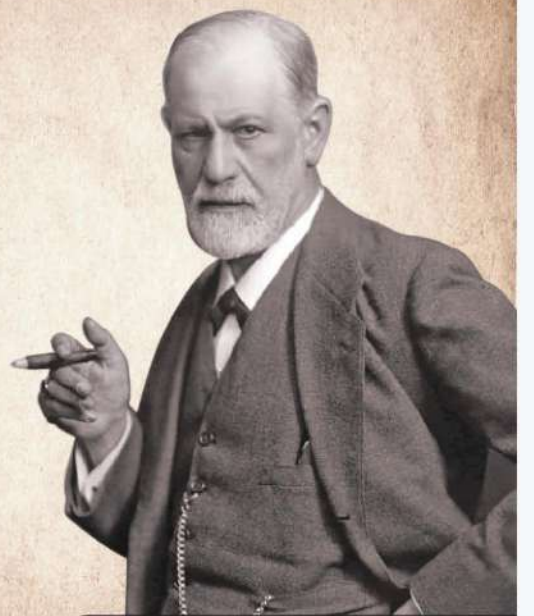
## 매개를 통해 소화되는 욕망

우리의 꿈은 좀처럼 일관성이 없고 엉뚱한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를 '드러난 꿈(내용)'이라고 한다. 반면, '감춰진 꿈(사고)'이란 꿈의 실질적 내용을 다루는 무의식적 소망과 기억을 말한다. 이는 유아기의 원초적 기억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당시의 억압된 욕망이 무의식에 남겨져 표상의 재료가 되는 것이다.

## 프로이트의 꿈 해석 사례

"꿈에서 만찬을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는 약간의 훈제 연어 말고는 준비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일요일 오후라 상점 문이 모두 닫혔다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물건을 배달해주는 상인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수화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수화기마저 고장난 거 있죠. 그래서 만찬을 열려는 소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 프로이트는 '훈제 연어'에 주목하면서 '감춰진 꿈'을 추적했다. 이 환자는 남편이 항상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했으며, 남편은 통통한 여자를 좋아했다. 또한 그녀는 실제로 훈제 연어가 아닌 캐비어를 좋아했으며, 훈제 연어는 전날 남편이 칭찬한 그녀의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친구에게 꿈었던 질투를 해소하고자 했고, 만찬이 좌절되게 함으로써 친구의 요구를 거절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1856~1939)

이에 대해 심영숙(서울정신분석상담연구소) 연구원은 "꿈은 본인이 아동기에 원했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해 우리에게 이를 일깨우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프로이트는 꿈을 '드러난 꿈'과 '감춰진 꿈',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때, 드러난 꿈은 감춰진 꿈의 은폐물에 불과하기에 그 자체로 이해하려 하면 안 된다. 감춰진 꿈은 ▲왜곡 ▲변형 ▲전치 ▲생략 ▲동일시 등의 작업을 거쳐 드러난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같은 맥락에서 '악몽'을 설명한다. 김 교수는 "꿈은 위장된 형태로 소망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꿈을 내용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즉, 나의 내재된 욕망이 '악몽'이라는 매개를 통해 소화된다는 것이지, 악몽의 내용 자체는 아니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꿈은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나의 욕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내 안의 금지된 것의 실현' 혹은 '불안감의 표현'이다. 이같은 속성을 꿈의 '변장'이라고 한다.

또한 꿈에는 두 가지 매커니즘이 작용하는데, 바로 '압축'과 '전치'다. 이것은 평소

억압됐던 무의식적 기억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으로, 무의식의 핵심공정이다. 먼저 압축이란 여러 무의식적 기억을 혼합하여 하나의 표상으로 의식에 드러내는 무의식적 작용이다. 이를 통해 꿈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전치는 망각된 무의식적 사유의 중요한 요소가 다른 요소들에 결합되어 드러나는 작동법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프로이트는 우연처럼 보이는 꿈의 내용이 사실은 무의식의 매커니즘을 철저히 따르고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 무의식의 의식화, 욕망을 만나는 과정

학자들은 꿈이 '프로이트 이전의 꿈'과 '프로이트 이후의 꿈'으로 구분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꿈의 해석'의 출판 당시, 그의 책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사이버 과학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당시에는 꿈을 비롯한 무의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의 해석'을 출간한 지 100년이 넘는 현재, 그의 이론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경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 이르러 그의 이론이 상당 부분 증명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이라는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고와 분석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깊은 이해로 연결될 수 있다. 김 교수는 "꿈을 해석하며 내면의 깊은 모습을 탐구하면 자기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고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 사람보다 사람 마음을 더 잘 안다? 인공지능의 '감성 분석'

3년 전, 이세돌 9단(인간)과 알파고(인공지능) 간에 성사된 바둑 대결은 전 세계의 관심사였다. 이 대결에서 이세돌 9단은 1대 4로 알파고에게 '완패'했고, 이는 아직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종전의 인식을 한번에 불식시켰다. 또한 현재에 이르러 인공지능은 사람을 대신해 생산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창작활동까지 펼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대체 인공지능은 어떻게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됐을까?

사람과 닮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는 여러 기술이 필요하다. 그중 '감성 분석'은 필수로 여겨지는 기술 중 하나다. 감성 분석이란 글에 내재된 사람의 주관적 태도나 감성을 추출해 내는 분석 기법을 말한다. 이때 인공지능은 단순히 긍정·부정 판별을 넘어 작성자의 감정과 감성, 태도와 같은 개체의 속성까지 분석한다. 즉,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감성 분석은 인터넷과 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대중이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생산하는 주체로 변화함에 따라 나타났다. 각종 웹사이트의 게시글, 댓글의 형태로 표출된 개인의 평가나 태도 등이 대중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영섭(순천향대학교 빅데이터공학과) 교수는 "감성 분석은 사람의 삶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개인이 작성한 영화리뷰를 분석해 그가 관심 가질만한 다른 영화를 추천하는 것도 감성 분석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제품을 '추천'하는 모든 행위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감성 분석을 위해서는 총 3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웹사이트 매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수집된 정보에서 작성자의 주관에 드러난 부분만을 걸러내는 '주관성 탐지', 마지막으로 주관성의 극성(Polarity)을 미리 정의된 극성(긍정·중립·부정 등) 또는 정도(매우 긍정적·중립적·매우 부정적 등)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이다.

데이터 수집 방법은 크게 '기계학습 기반' 접근법과 '감성사전 기반' 접근법으로 나뉜다. 기계학습 기반은 단어(문자 데이터)가 갖고 있는 패턴을 학습해 감성을 분류하는 예측 모델을 구축한 후, 이를 다른 유사한 단어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긍정 혹은 부정으로

분류된 라벨(Label)이 붙어 있는 데이터가 다수 확보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감성사전 기반 접근법을 적용해야 한다. 감성사전 기반은 수집된 문자 데이터를 미리 구축한 '감성사전'과 매칭해, 어느 쪽 극성의 감성어가 많이 나오는지를 정량화하는 방법이다. 감성사전은 각 감성어와 해당 감성어의 극성 범주, 감성 점수로 이뤄져 있다. 이때 극성 범주란 긍정어나 부정어 등 동일한 한 성격을 가진 단어 분류이며, 감성 점수는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정도를 수치화해 나타낸 것을 말한다.

성공적인 감성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대상별 특성을 살린 사전 구축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SNS 글을 분석할 경우에는 이모티콘 등장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사전을 구축해야 한다. 또 검색에 노출되기 어려운 아인점음(한글 자모를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바꿔 단어를 다르게 표기하는 인터넷 용어), 줄임말 등은 별도의

기계학습을 통해 표현을 구분해야 한다. 이에 정 교수는 "사람의 감성은 복합적이고 주변 문맥에 의해 의미가 뒤바뀔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주목받는 딥러닝 기술처럼 인구가 쌓여온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복잡한 감성 패턴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인지해내도록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1단계는 데이터 수집 단계로, 웹사이트 내 해당하는 분석 자료를 수집한다. 2단계는 주관성 탐지로, 자연어로 표현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식별한다. 3단계는 극성 분류로, 해당 속성에 대한 감성 점수를 감성어 가중치 및 점수를 곱해 합산한다.

· 삼 학 송 ·

# 마침표가 아닌, '쉼표'

이 글은 한성대신문사 편집국장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기록이다. 내 진로가 언론과 관련된 분야가 아닌 만큼,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기사나 칼럼을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더 완벽하고 맛있는 글을 쓰고 싶기도 하지만, '피날레'에 대한 부담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한다.

802일, 19,248시간, 1,154,880분, 69,292,800초 내가 (한성대신문)에 몸담은 시간이다. 기자로 1년 3개월, 또 편집국장으로 1년을 더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학보사를 떠날 준비를 하게 됐다. 사실 나는 살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오랜 시간 끈기를 갖고 임했던 적이 없다. 평소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심이 많아 이것저것 자주 찢어보지만, 또 그만큼 쉽게 싫증을 내고 질리는 편이라 대부분 경험의 깊이가 얇았다. 그런 내가 2년 3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텼다는 게 그저 경이롭다.

돌이켜보면 그간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다. 처음 출근한 날 오전 9시, 철야 근무한 선배 기자가 초췌한 얼굴로 간이침대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던 모습이 생생히 떠오른다. 가장 처음 투입됐던 취재와 바이어인에 첫 이름을 올린 기사는 절대 잊을 수 없다. 당시 취재 중 대잠받은 수국차의 향은 아직도 코끝에 맴도는 것 같다. 다소 민감한 아이템을 취재하면서는 취재원으로부터 인신공격도 당해봤고, 기사 검열에 응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에는 노동절 대회에 참석해 언론사 기자들 틈에 끼여 함께 취재해봤고, 여행 기획기사를 취재하기

위해 3박 4일간 전국을 순회하기도 했다. 또, 사내 투표를 통해 편집국장으로 선출됐고, 편집국장직에 취임하고 나서는 '읽고 싶은 학보 만들기'라는 나름의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까지...

물론,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다. 기자 시절에는 그때의 어려움이 있고, 편집국장이 되어서는 또 그만의 어려움이 있다. 전자가 육체적 고통이라면, 후자는 정신적 고통에 가깝다. 특히, 나는 수면부족과 스트레스에서 기인된 병을 달고 지냈다. 주치의는 스트레스 받는 일을 그만두지 않는 한, 완치될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내가 그만둘 수 있는 건 내 건강을 돌보는 것뿐이었다. 편집국장 업무에 치이고, 책임이 부담으로 느껴지면서부터는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까지 떠안게 됐다.

지금 나에게 '쉼'이 필요하다. 지난 27개월간 쉬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 한 호가 발간되면 바로 다음 호 발간을 준비했고, 또 그렇게 일정한 작업 사이클을 쳤다. 반박해왔다. 마치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찰리가 톱니바퀴의 나사못을 조이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학보의 발간과 학보사 운영에 맞추었고, 그것이 내 일상의 최우선 순위였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본질적인 의미의 '나'를 잃어 버렸다. 이제 나는 이 글을 마지막 호로 톱니바퀴 같은 일상에 '쉼표'를 찍으려 한다.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말이다. 학보사를 떠난다고 해서 내 일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편집국장이 아닌 '나'의 일상으로 복귀해, 진짜 나를 찾으려 한다. 그래서 나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는다.

강예림 편집국장



삼성 제5구역 재개발로 인해 학교 중문 인근 상가들이 줄이어 폐업하고 있다. 지난 26일, '용구비어 한성대점'이 문을 닫은 데 이어, 2017년 8월 개업해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카페 중 하나인 '카페 그란데'가 31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2년 가까이 카페 그란데를 운영했던 윤준영 사장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점포를 철거하라는 소식을 들었다. 아아 (재개발 부지인) 삼성 제5구역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상황에 놓여있을 것"이라며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심상우 기자

## 기자수첩

## 당신은 바람인가 딱지인가

우리는 종종 길을 걷다 넘어진다. 넘어지면 신체는 필연적으로 지면과 충돌하고, 피부 조직이 찢겨지면서 흠이 파인다. 이 흠을 우리는 '상처'라고 말한다. 이때 상처 위로 옷이 닿거나 바람이 불면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상처 위에 딱지가 앉을 즈음이면 고통은 사라진다.

그런가하면 마음의 상처도 있다. 타인에게 비난받거나 무시당할 때 우리 마음은 쓰라린 상처를 입는다. 이는 물리적 상처와 같이 건들면 쓰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물다.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 상처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상처를 후벼 파곤 한다. 상처를 봉대로 감싸 맨 한지를 건들지 않는 것과는 정반대다.

지난 2014년,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300여 명이 목숨으로 가라앉았다. 이 배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타고 있었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이 학생들이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기 보다는 도리어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심지어 단식 투쟁을 벌이는 유족 앞에서 치킨과 피자 먹는 '폭식 투쟁'까지 감행했다. 유족들의 마음을 감싸주기는커녕 도리어 후벼 판 것이다.

지난 3월 뉴질랜드의 지진이다. 아던 총리가 보여준 행동은 위와 정반대이다. 그는 검은 히잡을 쓰고 총기 테러로 가족을 잃은 무슬림들을 포용으로 위로했다. 마치 딱지가 상처를 덮어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듯 말이다.

이러한 일은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아던 총리처럼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눈치 채지 못한 순간, 우리의 야트막한 이해와 몰상식은 우리의 말을 날카로운 칼바람으로 만들어 상대의 상처를 채찍처럼 휘감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매서운 바람인가, 포근한 딱지인가?

윤희승 기자

## #낙산세컷\_하얗길\_빌런\_비흡연권은\_어디에

장선아 기자



## < 친구의 출퇴, 교수님께 말씀드려야 할까? 당신의 생각은? >



### <편집자주>

최근 온라인에 자신이 '출퇴(출석체크 후 도주하는 행동)한 사실을 교수님께 알린 친구를 용서해야 하는가'를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친구가 자신이 출퇴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수님께 출석체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려 서운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최보연(사회과학 2)

저는 수업을 꼬박꼬박 잘 듣는데 친구가 출퇴를 자주 한다면 당연히 억울하고 화날 것 같습니다. 걸리지 않는다면 수업을 들은 사람과 같은 점수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지 못한 친구는 시험에서도 분명 힘든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길 것 같습니다. 괜히 친구와 싸우게 되는 것보다 제 마음을 다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예슬(인문 3)

출퇴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은 학생은 이미 시험이나 그 외의 활동에서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결과로든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제 수업만 열심히 들을 것 같습니다.

한성대신문

한성대  
신문사

그럼 두 분은 출퇴를 한 사람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교수님께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 이시군요.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없으신가요?



유환익(영문 3)

출석체크를 하고 수업에 불참하는 것은 교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으므로 옹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출석을 하면 나머지 인원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출석한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수님께 다시 출석체크를 요구한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상 출석한 이들의 공익과 교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에서 사적인 친분에 의한 눈감아주는 배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윤서(인문 3)

출퇴는 명백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출퇴한 사람이 친구라면 의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편견과 차별에 맞선

## ‘정신장애인’의 힘찬 날갯짓을 바라며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살인 사건을 기억하는가? 21명의 사상자를 낳은 본 사건의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12월에 발생한 정신장애인 내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사건도, 2016년 발생한 ‘강남역 문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이같이 우리는 정신병력을 앓고 있는 사람의 범죄 소식을 주변에서 쉽게, 또 자주 접해왔다. ‘일반인과 다르다’는 두려움 때문일까. 일반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범죄는 우리에게 더 오래 진상으로 남기 마련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언젠가부터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해 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의견과는 달리 그들은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할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편견과는 다르게 조현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병이며, 그들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일부의 잘못된 편견으로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혐오와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지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정신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 혐오하는 사회, 설 곳 없는 정신장애인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신장애인을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신장애와 혼동될 수 있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발달장애’에 속한다. 즉, 정신장애인은 사람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이들의 취업현황은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19년도 1/4분기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취업률은 지적장애(64.2%)가 가장 높았고, 뇌병변장애(63.8%), 시각장애(63.7%)가 그 뒤를 이었으며, 정신장애인의 취업률은 40.3%로 드러났다. 이는 15개의 장애유형 중 4번째로 낮은 취업률이다. 이 현상에 대해 조순득(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은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라는 편견과 선입견, 낙인 등이 정신장애인의 취업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결과에 집계된 정신장애인 취업자의 대부분이 일반사업장 고용이 아닌 보호고용 사업장이나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에 고용된 인원이었”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상현(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지부장은 “정신장애인의 폭력적, 일탈적인 행동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행동이 정신질환을 앓을 시 무조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취업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들의 폭력적인 사건에 대한 각인이 심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총 858건 중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살인사건은 단 세 건뿐이다. 이는 전체 살인사건의 0.3%에 불과한 수치인데, 언론은 유독 ‘정신장애인의 살인사건’에 집중한다. 또, 피의자의 정신장애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과 병력 조회 중’이라는 말을 덧붙여 보도한다. 피의자가 실제 정신과 병력이 없더라도 ‘정신과 병력이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는 인식은 이미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된다.

게다가 각종 매체에서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은 정신병동의 공포 분위기를 연출해 정신장애인 단체의 질타를 받아, 이들에게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가 정신장애인에게 갖는 편견은 이 뿐만이 아니다. 정신장애의 대표적 유형인 조현병은 완치가 쉽지 않은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현(譙紉)병은 단어 그대로 현악기의 줄을 조율하면 좋은 소리가 나듯이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다만 이 병은 급성기 때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환청과 망상 등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현병자는 정신병원 진료를 거부한 채 자신의 병을 숨긴다. 사회적 시선 때문이다.

조현병의 유병률은 1%로 전 세계 인구 100명 중 한 명 꼴로 발병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실제 조현병 환자가 50만 명일 것이라 추정하지만, 조현병 등록 환자는 약 10만 명. 남은 40만 명의 조현병 환자는 자신에게 아픔이 있음에도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이를 숨기고 있다. 이같이 사회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정신장애인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이로 야기된 흉악범죄 때문에 그들을 더욱 혐오하는 시선이 극심해지고 있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회는 마치 그들에게 ‘숨어 지낼 것’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그들의 아픔이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까지



“어머님이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다. 긴장한 남자 둘이 양쪽에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저항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강제로 지프차에 탑승시켰다. 그들이 나를 데려간 곳은 으스스한 어느 병원. 간호사가 내게 영문 모를 약을 투약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사지가 묶인 채 기저귀가 채워졌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돌아오는 것은 체벌뿐이다. 이곳에 나의 의사표현이란 없다. 나의 일상엔 ‘감금’됐다. 나는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이는 폐쇄정신병동을 경험한 정신장애인의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 수준을 단편적으로 잘 보여준다. 위 사례와 같이 한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그 자체로 ‘정신질환자’로 규정하며, 정신병동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같은 형태의 입원이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비자의적 입원’이라는 인권 문제가 불거지자, 국회는 2016년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강제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 그럼에도 본질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 법률에서 강제입원의 기간만 줄어들었을 뿐 영장 없는 인신 구속은 여전히 때문이다.

주 지부장은 “우리는 정신장애인이 응급 입원과 강제입원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의 복지에 치료적인 행위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의료적인 의견만 귀담은 정책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어 그는 “환자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이라면 정신장애 당사자가 병원의 치료를 거부할 일은 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신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은 “극히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 법을 근거로 정신장애인을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해 여타 14개의 장애유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국’이 담당하고 있으나, 정신장애만 ‘건강정책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과는 다르게 재활의 관점보다 치료의 대상인 ‘환자’로 인식되고 있어 다른 장애인에 비해 정책적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지원 체계를 ‘장애인정책국’이 담당해야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서 정신장애인이

소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의 정신건강 복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복지의 미비함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 ‘인당 정신보건 예산’의 규모는 2017년을 기준으로 OECD 가입 유럽국의 경우 약 24,000원인데 비해, 한국은 3,889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만 명당 정신건강 전문인력’은 OECD 가입 유럽국의 경우 50.7명이지만 한국은 16.2명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이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정신보건 관련 복지 제도가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열악한 복지체계 속에서 정신장애인은 본인의 삶에 얼마나 만족할까?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에 응답한 장애인은 전체 중 58.6%였으나, 정신장애는 41.5%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다.

조 회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벗어나는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정신장애인이 조금 더 행복한 세상,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이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명시돼있는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이념이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한국인은 4명 중 1명꼴로 일생 동안 1번 이상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한다. 즉 정신장애는 특정 소수만이 겪는 장애가 아닌,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감기’와 같은 것이다. 인터뷰 말미, 조 회장은 “정신장애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들도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든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예비 장애인’이라는 성숙한 사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일반인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정상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같은 사람’임을 망각하고 있던 걸지도 모른다.



# 모든 날, 모든 순간 빛난 우리들의 대동제

박희연 기자 heeyun96@naver.com



▲이번 대동제는 마마무, 비와이, 풀킴, 위너가 초대가수로 공연했다. 특히 마마무의 무대에서는 '색칠이 빛나는 밤', '고고베베' 등의 노래가 이어져 학생들의 열기가 한층 더 뜨거워졌다.



▲상상관 앞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만든 중국, 일본 등의 전통음식을 판매했다. 그중 몽골의 '호호르'를 산 외국인 유학생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상상관 대강당에서 최현우 마술사의 특강이 진행됐다. 마술에 참여한 박민진(컴공 2) 학생은 "TV에서 보고 마술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 놀랍고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학생이 학교 놀이터의 '윈터 숲길을 찾아라'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비록 모델만이지만 자세만은 진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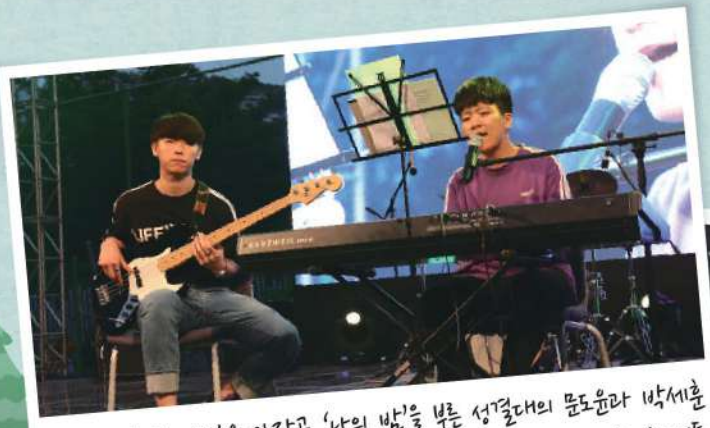
▲낙산극회에서 진행하는 '귀신의 집' 속 귀신을 체험 버스 안에서는 학생들의 비명 소리가 난무했다.



▲우리학교 공식 홍보대사인 '하랑'이 버스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하랑은 직접 만든 '견북 소금칩'과 '견북 빵크림'을 판매했다.



▲학교단에서는 이번 축제에서 운영하는 버스 홍보에 한창이다.



▲낙산가요제 대상은 자작곡 '나의 밤을 부른 성결대의 문도윤과 박세훈 듀엣에게 돌아갔다. 이번 가요제는 명지대, 경기대 등 타 대학 학생들과 우리대학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더욱 풍성해졌다.



▲비가 오는 중에도 비와이와 학생들의 열정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비와이는 뛰어난 랩 실력만큼 멋진 무대매너를 보여줬다.



▲축제 이튿날, 상상관 잔디광장에서는 '신길동 로망스', '포레스코'의 버스킹 공연이 있었다.